

정답 및 해설

정답

인문/사회

1. ⑤ 2. ④ 3. ④ 4. ④

과학/기술

5. ① 6. ④ 7. ⑤ 8. ⑤

문제 해설

인문/사회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및 해설] ⑤. 3문단에 따르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초과지급준비금이 줄어들어 예금은행의 대출 능력이 감소하므로, 통화량이 줄며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⑤의 내용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2문단에 따르면 ㉠은 국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국채를 매매해 통화 공급을 조절한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나 공채와 같은 유가증권을 매입할 때 대금으로 지급한 화폐는 본원통화를 증가시켜 통화 공급을 증대한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정책 금리 설정이나 대출 규모 조절은 소극적 정책이므로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재할인율은 ㉠이 민간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로,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민간은행의 차입금이 줄어들어서 통화량 감소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및 해설] ④. 2문단에 제시된 공개시장운영에 따르면, 국내 소비 및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민간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본원통화 증가를 통해 이자율 하락과 활발한 소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에 따르면 정부의 직접적 재정투자 확대는 거시 경제안정화정책이므로, 국내 소비 및 경기가 활발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적 재정투자를 통해 국민경제의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재정정책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재정투자는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고려되며,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행하는 정책이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유가증권 매매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이다.

③ 정부가 주도해 기준금리를 직접 인하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은 제시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제시문은 이자율을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정한 기준금리 수준에 도달하게끔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통화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⑤ 3·4문단에 따르면 국내 소비 및 경기가 활발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법정지급준비율이나 재할인율을 통해 민간은행의 대출 능력 하락에 따른 통화량 감소와 이자율 상승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및 해설] ④. 제시문 4문단에 따르면 재할인율정책의 공시효과는 중앙은행의 정책기조가 시장 주체들의 기대심리에 부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보기>의 유동성 공급 정책은 금리 경로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 A국 중앙은행이 실행한 '전통적 통화 정책'을 운용해 통화 공급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은 제시문 5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리 경로를 통해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경제를 안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② A국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초기에 취한 정책적 대응은 통화 공급 증가를 통해 금리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금리 하락에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경제지표 악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장기국채와 신용위험 증권 매수, 공시효과 유도 등 다른 정책적 조치를 실행하게 되었다.

③ 제시문 5문단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나 신용위험 증권을 매수하는 조치는 기존의 전통적 금융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비전통적 금융정책이다.

⑤ 제시문 4문단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대출 능력을 확장하고, 경기부양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시장에 알리는 등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전통적 통화정책인 금리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방식이다.

4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및 해설] ④. 법정지급준비율을 5%로 인하하면 대출로 거래되는 자금의 규모가 커지므로 통화승수는 증가한다. 그러나 본원통화의 양이 최초의 100만 원에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본원통화 금액이 200만 원으로 늘어나더라도 법정지급준비율이 기존처럼 10%라면 통화승수는 10으로 동일하다.

② 법정지급준비율이 100%일 때는 신용창조(대출)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통화량의 규모에 변화가 일어날 여지가 없다.

③ 법정지급준비율이 인상되더라도 신용창조 과정은 무한급수를 이루며 계속 반복된다. 단, 법정지급준비율이 100%라면 신용창조가 생기지 않는다.

⑤ 초과지급준비금이란 은행이 보유한 총지급준비금에서 법정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만큼의 준비금을 의미한다 (총지급준비금 - 법정 지급준비금 = 초과지급준비금). 법정 지급준비율의 변화가 없을 때 B 은행의 총지급준비금이 기존의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나면, 초과지급준비금은 법정 지급준비금의 초과분만큼인 0원에서 1만 원으로 증가한다.

과학/기술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및 해설] ①. 1문단에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원자량보다 원자번호에 따라 원소들을 배열했을 때 더 정확하게 나타나고, 이것이 현대 주기율표의 체계가 되었다는 사실이 제시되므로 ①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1문단에서 원자번호는 양성자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으므로 ②의 내용은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지닌 총 17개의 원소를 '히토류원소'라 부른다고 했으므로 ③의 내용은 적절하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주기율표상에서 화학적 성질의 유사성은 같은 열에 놓인 원소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④의 내용은 적절하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오비탈은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의미하므로 ⑤의 내용은 적절하다.

6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및 해설] ④. 1문단에 따르면 주기는 전자껍질 수를 나타내고 족은 최외각전자 수를 표시하므로 같은 주기는 전자껍질의 수, 같은 족은 최외각전자의 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에 따르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양성자 개수에 따라 결정되는 원자번호에 따라 배열했을 때 더 정확하게 나타나고, 3문단에 따르면 란타넘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므로 ①의 내용은 적절하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원자핵과 가까울수록 원자 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값인 전자의 에너지준위가 낮다. 이를 통해 원자핵과 가까우면 에너지준위가 낮고, 멀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1·3문단에 따르면 주기율표상에서 화학적 성질의 유사성은 같은 열에 놓인, 즉 같은 최외각전자의 수(족)를 지닌 원소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란타넘족은 주기율표상에서 악티늄족과 나란히 두 줄로 표시된다. 3문단에 따르면 주기율표상에서 화학적 성질의 유사성은 같은 열에서 발견된다. 악티늄족은 희토류원소인 란타넘족과 주기는 다르지만, 같은 열에 놓이며 각각 4f와 5f 오비탈을 채워 나간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및 해설] ⑤. 마델룽 규칙에 따르면 5d보다 에너지준위가 낮은 4f에 2개의 전자를 채워야 옳다.

[오답 해설] ① 제시문 3문단에 따르면 스칸듐의 원소번호는 21번이다. 그러므로 전자껍질만 고려해 오비탈에 전자를 채울 때 스칸듐은 총 21개의 전자가 각각 1s 오비탈에 2개, 2s 오비탈에 2개, 2p 오비탈에 6개, 3s 오비탈에 2개, 3p 오비탈에 6개, 3d 오비탈에 3개를 차례로 채우게 된다($1s^2 2s^2 2p^6 3s^2 3p^6 3d^3$).

② 원자번호 20번인 칼슘은 전자를 1s 오비탈에서부터 순서대로 채울 때 3d 오비탈에 전자를 채우지 않고 4s 오비탈에 2개의 전자를 채움으로써 총 20개의 전자를 배치하게 된다($1s^2 2s^2 2p^6 3s^2 3p^6 4s^2$).

③ <보기>의 3문단에서 71번 루테튬이 4f에 모두 전자를 채운 뒤 5d에 전자 1개를 채우는 배치라고 했으므로 $1s^2 2s^2 2p^6 3s^2 3p^6 4s^2 3d^{10} 4p^6 5s^2 4d^{10} 5p^6 6s^2 4f^{10} 5d^1$ 와 같이 71개 전자가 차례로 배치되며, 따라서 f 오비탈에는 총 14개의 전자가 들어감을 알 수 있다.

④ 66번 디스프로슘은 4f에 3개의 전자를 채우는 59번 프라세오디뮴으로부터 7개의 전자를 추가하게 되어 총 10개의 전자를 4f 오비탈에 채우게 된다.

8 윗글의 ㉠과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및 해설] ⑤. 제시문 4문단에서 ㉠인 란타넘은 하이브리드자동차용 전기 저장 장치에 사용되는 니켈수소전지

양극의 주성분이라는 점이 나타나며, <보기>에서 ㉡인 코발트는 전자기기 배터리로 쓰이는 리튬이온전지의 양극 물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답 해설] ① 제시문 4문단에 따르면 ㉠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켜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고, <보기>에 따르면 ㉡은 일부 국가에만 자원이 편중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매장량이 가장 많은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①의 내용은 인과관계가 적절하지 않다.

② 제시문 3·4문단에 따르면 ㉠은 전 세계 지각에 포함된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추출이 까다로워서 ㉡으로 분류된다.

③ 제시문 4문단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제의 성분으로 널리 쓰이는 타이타늄 산화물보다 더 넓은 영역대의 파장의 빛, 즉 가시광선 가운데 푸른빛 영역까지 흡수할 수 있는 프라세오디뮴은 용접용 보안경에 들어 있다. 이때 타이타늄은 ㉠이 아닌 ㉡이다.

④ 제시문 3문단과 <보기>에 따르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서 새롭게 분류된 17개의 원소들은 ㉠이며, ㉡은 경제적·산업적으로 정의된 명칭이다.

※ 「비문학 독해를 향한 도약, 스키마 점프 워크시트」는 이번 호로 연재를 종료합니다. 더 유익하고 알찬 콘텐츠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